

‘의왕월암지구’ 앵커기업 등 29개사 유치... 5600억 규모

자족 기능 회복·경제 활성화 도모 우량기업 주아이엔지(주) 등 유치 2500명 직·간접 고용 창출 510억 수준 세수 확보 기대감

의왕시가 의왕월암지구에 앵커사 및 반도체,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29개사를 유치하면서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주요 R&D 중심지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총사업비 5600억원에 달하는 ‘의왕월암 공공주택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이하 의왕월암지구) 기업유치 사업에 앵커기업 2개사를 포함해 반도체, 4차산업혁명 분야 기업 등 29개사를 성공적으로 유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왕월암지구 기업유치사업은 시의 자족 기능 회복과 경제기반 확충을 통



의왕월암지구 조감도

/의왕시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지구 인근은 현대자동차 연구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테크노파크 등 의왕시 산업 성장의 메카

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의왕시가 유치한 주아이엔지(주)는 반도체 분야 우량기업으로, 삼성전자 등의 다수의 반도체 FAB&GCS 설계 및

바이오 공정에 적합한 구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는 총 3개 동(오피스동, 공장동, 주차동), 연면적 19만㎡ 규모로, 첨단 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주아이엔지(주)는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1100㎡ 규모의 ▲창업지원공간 ▲의왕시 창업펀드(8억원 규모)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의왕시와 손을 잡아 눈길을 끈다.

또한, 앵커기업인 비엔비코리아, 인익스를 포함한 에코민, 나이스엔테크 등 4차산업혁명 분야의 건설한 기업들이 의왕월암지구 본사와 공장, 연구소 등을 이전하고 이와 연관된 협력사들도 추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져 월암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왕시는 이번 월암지구 기업유치사

업을 통해 건설·운영 단계에서 약 2500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과 운영 단계(2025~2030)에서 510억원 수준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금융(PF대출) 경색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의왕시가 핵심 인재 확보가 가능한 지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왕시에 입주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에서도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주력산업 및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로 의왕시가 일자리가 풍부한 첨단자족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경기)=김대의 기자 dykimi@metroseoul.co.kr

교육부 “수능 수험생, 실물 신분증 필참”

시험 전날 예비소집서 수험표 수령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 입실해야 시험 중 전자기기 소지 부정행위 간주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실물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는 수험생 본인 확인이 불가하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는 시험 중 소지할 수 없고, 시계는 아날로그시계만 가능하다.

교육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3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한다.

수험생은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 수험생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주민등록증·청소년증 발급신청확인서,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이 인정된다. 단,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 중 휴대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스마트워치를 포함한 스마트기기, 태블릿 피시(PC),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온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

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가 된다.

시계의 경우 결계·통신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한편,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모든 수험생은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이어지는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고, 해당 순서의 선택과목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험생들의 노력이 불미스러운 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시험 전 수험생 유의 사항을 숙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

수원시, 통합업무서비스 ‘우수사례’ 지정

OECD 공공혁신협약체 공모 선정

수원시가 개발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공공혁신협약체(OPSI)가 공모한 2023년 공공서비스 혁신(Call for Innovation in Public Service)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OECD OPSI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공공분야 혁신사례를 매년 발굴해 국제사회에 알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 세계 정부·학계·민간·시민사회 등이 800건 이상의 혁신 사례를 제출했다. 한국의 제출사례 43건 중 수원시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서비스를 포함한 7건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민간 클라우드 기반 통합업무서비스는 12개 공공기관의 공통업무를 통합한 시스템이다. 통합 전사적 지원 관리(ERP) 업무 5종, 통합그룹웨어 4종 업무

를 클라우드를 활용한 업무 서비스로 전환했다.

각 기관이 별도로 전산업무를 수행하고 전산인력을 운용했던 비효율성을 개선했고, 민간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본 사업은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공모사업으로 시작됐고, 이후 지속해서 확대 보완해 디지털 전환을 완성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수원시 공공기관들은 전산 인프라를 통합관리할 수 있게 됐고, 비용도 절감했다.

수원시의 혁신사례는 OECD OPSI 홈페이지에도 게재됐다. 연말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국내 혁신사례집에도 수록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민간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가 국제사회로부터 정부혁신사례로 인정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수원(경기)=유진채 기자 yujin@

서울시, 폐지수집 사고 시 ‘500만원 보장’

65세 이상 안전보험 가입 지원

서울시가 65세 이상 어르신 폐지수집하다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 대인·대물 배상책임 등을 최대 500만원 보장하는 보험을 지원한다. 경량 리어카, 야

광조끼 등 안전 장비도 지급한다.

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

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다. 이는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2022년)의 9배에 이르는 수치다.

이에 서울시는 폐지 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02 | 해질 / 17:29

11월 6일 (수)
음력 : 10월 6일

수도권 날씨
4 ~ 11°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1/11, 가평 0/12, 파주 -1/11, 서울 4/11, 양평 3/12, 인천 6/10, 수원 4/11, 용인 4/11, 평택 2/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0시 투표’美德스빌노치서 해리스-트럼프 동률
▲ 北 탄도미사일 100km 상공 400km 비행 /사진 뉴시스

▲ 日이시바 “자민 공명 연정 유지하며 국민민주와 정책협업”
▲ G7외무장관 공동성명 “北미사일 강력 비난”



▲ 식량안보 위기 대응 강화 카리브와 농업 협력 모색
▲ 메타, 자사 AI모델 ‘라마’ 국방 안보 목적 사용 허가 /사진 뉴시스